

삼양그룹, 3900억 향료기업 품고 ‘고부가 소재사업’ 재편

식품 원료서 향료·향장까지 진출
반도체용 고분자·PAG 사업 강화
KCI·버드트로 퍼스널케어 보강
이소소르비드 연 1.5만톤 체제
AI서버·의료 분야 제품군 다변화



삼양그룹 본사 전경. /삼양그룹

삼양그룹이 식품과 화학을 양축으로 스페셜티 중심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 전통 소재 사업의 수익성 한계를 넘어 향료, 반도체 소재, 퍼스널케어,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최근 식품소재와 화학소재 전반에서 기술 경쟁력과 고객 맞춤형 기능을 앞세운 제품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존의 기초 소재 중심 사업만으로는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수익성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전략이다.

식품소재 부문에서는 기능성 원료에 향료 사업을 더하는 방식으로 사업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삼양그룹은 최근 약 3900억원을 투입해 일본 5대 향료기업으로 꼽히는 소다 아로마틱을 인수했다. 소

다 아로마틱은 식품 향료와 향수·화장품 용 향장 등을 주력으로 하며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 7개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중심의 식품소재 사업을 향료·향장 분야까지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보고 있다.

반도체 소재도 스페셜티사업의 한 축으로 꼽힌다. 삼양엔씨켄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계열사로, 포토레지스트 핵심 원료인 고분자(Polymer)와 광산발산제(PAG)를 생산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구현하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 소재로 고분자는 패턴 형성의 기반이 되고 PAG는 빛을 받으면 산을 발생시켜 화학 반응을 유도한다. 삼양엔씨켄의 생산능력은 PR 용 고분자 연 240톤, PAG 연 20톤 규모다.

퍼스널케어 사업은 KCI와 버드트 인수를 통해 화장품·삼푸용 고기능 원료뿐 아

니라 산업용 계면활성제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식품과 화학을 넘어 생활소비재 소재 영역까지 스페셜티 사업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친환경 사업에서는 삼양이노켄의 이소소르비드가 핵심 제품으로 꼽힌다. 이소소르비드는 옥수수 등 식물 자원 유래 전분을 원료로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소재로 플라스틱과 코팅제, 산업용 소재 등에 활용된다. 삼양이노켄은 연간 1만 5000톤 규모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소소르비드를 생산하고 있다.

화학 사업에서는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군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글래스 케이스용 고충격 실리콘 폴리카보네이트(Si-PC), IT 통신기기용 내후성소재, AI서버용 고내열·고치수안정 소재 등이 주요 스페셜티 소재로 꼽힌다. 의료 분야에서는 감마선 멸균 후 황변을 줄인 의료용 폴리카보네이트(PC)와 소독

제 내구성을 높인 Si-PC 기반 의료기기 소재를 선보이고 있다.

모빌리티 영역은 전동화 부품 수요와 맞물려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기차 모터코어용 접착제와 자동차 램프용 고무와 폴리카보네이트, 차량 경량화용 열가소성 폴리에스터 엘라스토머(TPEE) 등이 주요 제품군이다. 전력 효율 향상과 경량화, 내구성 강화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소재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페셜티 제품군은 특정 산업의 요구에 맞춘 기능성과 기술 경쟁력을 갖춘 소재로, 경쟁 강도가 낮고 수요처가 명확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삼양그룹이 육성하는 향료와 반도체 소재, 이소소르비드,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도 이러한 특성을 갖춘 제품군”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大·中企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건 포상

중기부, 제1차 원원아너스 수여식
기술 국산화·글로벌 진출 성과 발굴
한일하이테크, 77만달러 역수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앞줄 왼쪽 6번째)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원원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에서 기념패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한일하이테크가 한국가스공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 폴란드에 77만달러 규모의 불베어링을 역수출했다. 해상팜은 롯데지알에스와 손잡고 계약 대비 102% 수매 실적을 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및 공기업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던트 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원원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열고 상생협력 우수사례 10건에 대해 기념패를 시상했다고 밝혔다.

원원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창출한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홍보 지원,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기술 자립 및 글로벌 진출(4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글로벌 규제 대응(2건) ▲사회적 난제 해결을 통한 판로 확대(4건) 등이 총 10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와 한일하이테크가

최고점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경기 평택 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를 'K-에스 트베드'로 제공하고 1억6000만원의 실증비 및 기술 자료를 지원했다.

덕분에 한일하이테크는 162°C에서도 변형이 없는 불베어링 국산화에 성공했다. 원가 30% 절감, 납기 4개월 단축, 77만달러의 역수출 성과도 냈다.

한국남동발전과 성일터빈은 10년에 걸친 공동연구개발(R&D)로 가스터빈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고, 한국중부발전과 위플랫은 인공지능(AI) 기반 누수 탐지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글로벌 규제 대응 부문에선 두산에너지리타가 케이피씨엠에 상생협력기금 1억

2000만원과 컨설팅을 뒷받침한 사례가 뽑혔다. 케이피씨엠은 제조공정 및 에너지 데이터를 개량한 맞춤형 탄소 산정 모델을 구축했고 대기업과의 거래 규모를 15%나 늘렸다.

롯데지알에스와 해상팜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급망 위기와 청년농가 판로난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풀었다. 롯데지알에스는 해상팜과 시세와 관계없는 전량 수매 보장 계약을 맺고 재배 컨설팅을 지원했다.

해성팜은 이를 이용해 최적화된 고품질 감자 생산으로 계약 대비 102% 수매 실적을 달성했다. 롯데지알에스와 로컬 상생 신메뉴도 함께 출시했다. /김승호 기자 back@

크래프톤, AWS와 AI·클라우드 협력 확대

김창한 대표, 시애틀서 AWS CEO 회동
AI 연구개발·클라우드 인프라 논의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이사(왼쪽)가 미국 시애틀에서 만난 AWS CEO 회동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크래프톤

크래프톤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AWS(아마존웹서비스)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미국 시애틀에서 맺 가던 AWS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AWS 경영진과 만나 AI 및 클라우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크래프톤의 AI 비전과 함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가 게임 개발과 AI 기술 고도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양측은 AI 연구개발 역량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틱스와 AI·시뮬레이션 기술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사는 AI 에이전트와 시뮬레이션 기술이 게임 산업을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은 최근 게임 개발사를 넘어 AI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자체 AI 연구 조직을 운영하며 AI 캐릭터(CPC)와 게임 특화 AI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에 AI 로봇틱스 기업 루도 로봇틱스를 설립했으며 김 대표가 직접 대표직을 맡고 있다.

AWS 역시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최대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는 기업용 AI 서비스와 대규모 AI 학습·추론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게임 산업에서 축적한 AI 기술력을, AWS는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중소대출 많은 시중은행, 상생노력 첫 평가

동반위,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
국민·기업·농협 등 6개 은행 대상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체감도 등을 계량화한 지표로,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필요자금의 대부분은 은행에서 조달하는 만큼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수를 도입한 것이다.

상생금융지수는 ▲상생금융 실적평가(40점) ▲상생협력 실적평가(40점) ▲체감도 조사(20점)와 감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시중은행 6곳에 대한 상생 노력이 점수로 매겨진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대상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를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시범평가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생금융지수'는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과 기술금융, 관계형 금융, 채무조정 등을 평가하며, 상생협력 실적평가는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 균형성장,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등을 반영한다.

체감도 조사는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 대출 조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의 비재무적 평가 반영 노력,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나 금융거래·동반성장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감점 요인이다.

상생금융 실적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상생협력 실적평가와 체감도 조사는 동반위가 각각 담당한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웹툰, 창작 앱 '컷츠메이크' 선포

웹툰 장면·캐릭터로 슷폼 제작
원작자 승인 IP 9개 작품 참여

인물 거처 제공돼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2차 창작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

네이버웹툰이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슷폼 콘텐츠 생태계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웹툰은 24일 원작자 승인을 받은 웹툰 IP를 기반으로 슷폼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 도구 앱 '컷츠메이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컷츠메이크는 네이버웹툰의 슷폼 애니메이션 서비스 '컷츠'와 연동되는 창작 도구다. 이용자는 웹툰 속 장면과 캐릭터를 선택해 손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모든 IP는 원작자의 승

주요 기능은 캐릭터 'ميم'과 '웹툰 MV'다. 캐릭터 'ميم'은 웹툰 캐릭터와 템플릿을 활용해 슷폼 챗린지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능이다. 웹툰 MV는 원하는 웹툰 장면을 활용해 뮤직비디오나 애니메이션 오프닝 형태의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가비지타임, 만남 어플 중독, 역대급 영지 설계사, 연애혁명, 이직로그, 작두, 작전명 순정, 전지적 독자 시점, 해시태그는 첫사랑 등 9개 작품이 참여한다. /최빛나 기자